

대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행정학과 곽승호 -

서 론

1. 대구에 대한 인식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3대도시라 하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라고 교과서에 소개되곤 하였다. 대구시는 대한민국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고 발전한 3대 도시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3대 도시의 자리는 인천광역시에 내어 주고 타 광역시에 비해 발전이 더더지면서 광역시중 가장 소득이 낮고 발전이 없는 도시로 전락해 버렸다.

대한민국의 3대 도시를 자부하던 대구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음을 자랑하던 경북의 현주소는 한마디로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정체된 시공간'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의 뇌리에 새겨진 대구의 인상은 해마다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는 찜통더위, 광역시도 중 가장 가난한 도시, 보수성과 폐쇄성, 유신 정권과 5·6공의 정치적 토대, 대형 사고의 도시, 맵고 짜기만 한 음식, 유교 양반의 도시, 소비의 도시 등이다. 20여 년 전까지는 사과의 도시, 10년 전까지만 해도 섬유의 도시라는 닉네임이 붙었지만 이미 대구에는 사과 농가가 없고, 어렵사리 명맥을 유지해 오던 대형 섬유업체들은 IMF 관리체제 이후 몰락했다.

정치적으로는 한나라당의 텃밭이자, 공약이나 인물과 무관하게 무조건 한나라당을 뽑아주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곳이기도 하다.

2. 대구의 특징

① 숲의 도시

여름이 되면 대구는 일기예보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도시로 유명하다. 대구보다 높은 기온을 자랑하는 곳은 어찌다가 한번 뿐, 대부분의 여름날은 대구시가 가장 높은 기온을 자랑하곤 한다. 이는 분지형 도시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지만 대구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범시민적 나무 심기 운동(1996~)을 벌여 11년 동안 1042만 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었다.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 봐도 대구 도심만큼 나무가 많이 심어진 곳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흔히 여름엔 살 곳이 못된다고 하는 대구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타 도시와 비교해 크게 덥지 않은 대구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더우면 대구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곤 한다. 이는 대구 시민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없거나 타 도시에 비해 매우 낮은 대구 시민 특유의 기질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② 절망의 도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구는 소득이 낮은 도시이다. 대구시는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1993년 이후 단 한 번도 16개 광역자치체 중에서 최하위를 면한 적이 없다. 또한 한번도 정치적 지형도(현한나라당)가 바뀐 적이 없는 보수성, 폐쇄성이 짙은 도시이다. 대구를 흔히 보수의 대명사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대형사고(상인동 지하철 가스 폭발사고, 대구 중앙로역 화재사고)는 터졌다 하면 대구라는 꼬리표가 붙어 '절망의 도시'로 몰락해 버렸다.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은 대구를 영화 배트맨에서 나오는 절망의 도시(고담 시티)에 빗대어 '고담 대구'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상에선 이미 고정적인 이미지가 되어 버렸다. 각종 사건·사고가 연

일 기사거리로 올라오고 있지만 유독 대구 기사에는 ‘역시 대구다’, ‘또 대구네’라는 댓글들이 달리며 조소와 조롱을 받는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다.

③교육의 도시

대구에는 유명한 수성학군이 있다. 매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일명 SKY대학의 입학생을 발표할 때면 수성구에 위치한 고등학교가 상위권에 올라가 있으며 대구에서 잘 나간다는 학원강사는 수성구에 몰려 있고 이로 인해 ‘맹모삼천지교’현상으로 수성구가 대구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이기도 하다. 대구에서 가장 발전한 구는 단연 수성구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북구, 동구, 서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많은 차이를 보인다. 대구시에만 4년제 대학이 5곳, 전문대학이 7곳이며 대구와 같은 생활권인 경산시에는 10여개가 넘는다. 이렇게 많은 교육의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갖추었지만 정작 입학시즌에는 많은 대학들이 정원 미달 사태를 낳고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 많은 인재들이 서울로 대학을 입학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대구의 문제가 아니라 타 지방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구의 문제점은 떠난 인재가 다시 돌아올 인프라가 없다는 것이다.

④보수적.폐쇄적 시민

대구시의 중.장년층의 상당수는 여전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을 그리워하고 소위 TK정권을 그리워하고 있다. TK가 아닌 인물이 정권을 잡으면 TK가 아니라 대구가 발전이 없다고 비판하며 중.장년층의 이러한 인식은 젊은층에게까지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희 대구지역의 선거시 투표율을 보면 보수당에 80%이상의 투표율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TK시절

그들이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왜 이토록 그들에 집착하는지를 묻는다면 근거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다들 '카더라 통신'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대구시는 현재 국가단지나 대기업이 없는 광역시 중 유일한 곳이다. 이는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며 이는 소비 둔화와 인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것이 비단 요 근래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대구시민들은 우리는 보수당을 지지하고 찍어줘야 대구가 먹고 산다는 정치인들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소위 '우리가 남이가'라는 구호가 대구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어 내는 것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대구시민 하지만 정이 많은 대구시민들에게 좋은 전략이 되었다.

하지만 보수성이 단순히 배타성·고집·폐쇄성 등의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의리·명분·전통 중시 등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론

①대구시민의 기질과 개선 방안

많은 사람이 대구시민의 보수성을 비판하고 대구 시민 역시 보수성을 버리고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 커뮤니케이션센터(소장 이재필)가 대구·경북 사람들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타지역민 9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경북인의 기질

대구·경북인들을 대상으로 기질을 조사한 결과 대구·경북인의 기질로 '정이 많다'와 '보수적이다'라는 응답이 5점 만점에 각각

3.94와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창의성(2.81) 융통성(2.83) 합리성(2.93)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타지역민들은 대구·경북인의 기질에 대해 '적극적'(3.85)이고 '보수적'(3.71)이며 '정미 많다'(3.67)고 응답했으며, 대구·경북인과 마찬가지로 '창의성'(2.86) '융통성'(2.89) '합리성'(2.98)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구·경북인의 기질에 대한 성별 생각은 대체로 차이가 없었으나, '정미 많다'는 특징에 대해 남성은 4.08 여성은 3.80으로 나타나 여성에 비해 남성의 동의가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정미 많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30, 40대 연령층에서는 '보수적'인 면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구·경북인의 기질에 대해서 대구시민들은 '보수적'(3.96)이라는 데 가장 크게 동의하고 있으며, 경북지역민은 '정미 많다'(3.97)에 가장 많이 동의하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에서는 '합리적' '적극적' '낙천적'이라는 응답이 대구지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구·경북인에게 가장 필요한 의식

대구·경북인들은 앞으로 지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식으로 '개방성'(23.3%)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단결심(21.8%) 창조성(16.2%) 진취성(11.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해서는 성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은 남성보다 '단결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남성은 '실리 추구'에 대한 응답이 여성보다 높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단결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젊은층일수록 '개방성'과 '창조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해 지역민에게 필요한 의식에 대해 연령별로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필요한 의식에 대해서도 대구와 경북민의 생각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대구지역민들은 단결심보다는 '개방성'(24.3%)을 가장 많이 꼽고 있는 반면, 경북지역민들은 '단결심'(26.7%)을 1순위로 꼽았다.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은 경북에서는 5.0%에 불과한 반면, 대구에서는 11.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경북민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의식

대구·경북인들은 지역민들이 버려야 할 의식으로 '보수성'(29.5%)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체면중시(18.5%) 권위주의(17.0%) 배타성(13.8%) 등도 개선해야 할 의식으로 꼽았다. 그 외 연고주의(9.3%) 집단주의(8.3%) 온정주의(1.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보수성을 버리고 개방성을 높여야 하고 보수는 버릴 것이 아니라 단결하고 응집하는 장점을 살리면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구시민은 무뚝뚝하지만 정이 많고 의리가 있다. 이는 융통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한 이미지와 같이 하고 있으나 개방적으로 변화를 주고 실리추구를 향해 간다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②일자리를 만들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구시는 1인당 총생산액이 16개 광역자치체 중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이는 대구시에 대기업이나 국가단지의 부재와 그로 인한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다. 현재 전국 1000대기업 중 대구에 위치한 기업은 17곳(전국의 1.7%)이 전부이다. 이는 경북의 41곳 보다 못한 것이다. 대구의 구직자는 “일하고 싶은데 일 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첫째 원인으로서는 제조업의 몰락을 들 수 있다. 1995년 대구의

고용 30%를 담당했던 제조업 비중은 10년 만에 21.5%로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섬유산업은 10년간 1천806개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대구를 떠나면서 4만 3천96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나마 제조업 부문을 지탱하고 있는 기계,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외지 투자에 나서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섬유업체는 고용창출 능력이 없거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물류비용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문제는 일자리가 줄면서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 남지 못하고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젊고 유능한 젊은이에게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젊고 유능한 그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때 인재는 모여들고 그 속에서 사람은 성장한다. 분명한 사실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보듬지 못하는 지역은 미래가 없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최고의 학군과 교육환경, 인재를 자랑하면서 정작 그들이 실력을 발휘할 기회는 타 도시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최근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보면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은 지식이 흘러다니는 길목에 집적한다. 지식사회에서는 인재가 있는 곳에 기업이 모여들고 그 기업이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과 논을 파헤쳐 도로를 닦고 값싼 공장 부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대구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도로를 닦고 하수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논하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이제는 **인적자원개발(HRD)**로 가야 한다. 단순한 기능인력 양정보다는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시는 인적자원개발에 힘쓰고 지역대학은 모집에 급급하기 보다는 취업 경쟁력이 있는 교육개발에 힘을 쓰고 지역 사회는 괜찮

은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경제 희생의 발판을 마련하고 인재의 역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③Colorful Daegu

대구시는 침체된 대구시 경제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Colorful Daegu**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다. ‘가난한 도시’, ‘갇힌 도시’ 최근에는 ‘고담 대구’라는 부정적인 대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역동적인 대구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심 곳곳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화려한 조명과 색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타 도시에서 대구로 전입을 한 사람들은 대구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대구에 오기 전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보수적, 폐쇄적, 배타적)가 많았지만 직접 살아보니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교통 소통이 원활하며 집값 또한 타 도시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한다. 또한 물가는 광역시중 가장 낮기도 하며 물가 상승률 또한 가장 낮은 도시가 대구이다. 이처럼 대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실제 겪어본 것이라기 보다는 여기 저기서 주워 들은 얘기이거나 소문으로 인해 잘 못 채워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 대구는 지역의 특성상 관광지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여 타 도시인들이 대구를 방문할 기회가 드물다. 최근에는 대구시티투어를 하는 버스가 생겨나고 관광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구시도 관광산업을 개척하고 발전시킨다면 현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폐쇄성도 개선될 것이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는 대구시의 이미지를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적 특성상 관광산업 개발이 힘들다면 다른 분야(예를 들면 위락시설, 놀이공원, 오락시설)를 갖추는 것이 대구시의 경쟁력을 살릴 하나의 길일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의료관광산업을

발전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④애물단지 대구 군부대

최근 대구시는 도심 발전의 장애가 되는 K-2 공군부대와 미군 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K-2공군부대는 북구와 동구 주민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고 미군부대는 남구 지역의 노른자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구지역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대구는 ‘이시아폴리스’, ‘신서혁신도시’, ‘동대구역세권 개발’등 대형사업이 즐비해 있고 특히 대구·경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K-2의 이전 필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구시민이 하나가 되어 군부대 이전을 실현화 시켜야 할 것이며 이는 대구도심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이다.

결 론

현재 대구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 도시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시아폴리스’, ‘신서혁신도시’, ‘동대구역세권 개발’등 대형사업이 기다리고 있고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준비중에 있다. IT모바일특구,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교육특화구역등 대구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은 충분하다. 제조업이 몰락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기반이 취약해 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는 시기로 지역인재양성(HRD)에 힘을 기울이고 지역 기업은 기업교육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대학은 인재양성과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형적인 영향을 받아 ‘자기 중심적’이고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시민의식, ‘배려’심이 부족하고 ‘봉사’정신이 부족한 시민의식, 타 지역에 비해 학연, 혈연, 지연이 강한 대구이지만 앞선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개방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수는 의리로’, ‘폐쇄성은 결속력’으로 변화·발전시켜 나가고 ‘배타적인 성향을 배려심’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면 대구시는 더 이상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역동적이고 역량 있는 도시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비록 단기간에 걸쳐 변화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지역사회 자·체와 기업, 대학, 시민들이 모두 이러한 대구지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점차 나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지고경험(至高經驗)’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 행복의 절정을 경험한다는 말로 결국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느낄 때는 권력이나 명예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사랑, 선행, 봉사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구현할 때라는 것이다.

대구 시민들도 이제 더 이상 ‘대구는 이래서 안돼’, ‘대구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자기 안에 갇혀 살기 보다는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고 변화를 즐기며 서로 보듬어 주고 배려 하며 봉사하는 시민 의식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과감히 제거하고 인적자원 개발과 지식사회기반의 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3대 도시로의 명성을 되찾아 살고 싶은 도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데 대구시민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절망의 도시' 자학 떨쳐낸 大邱
(신동아 2007.7, 최영철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2. 성장을 멈춘 절망의 도시 大邱 - 순환·경쟁·상호비판 없는 同種교배의 도시
(월간조선 2006.3金泰完 朝鮮日報 교육섹션 취재팀장)
3. 대구·경북 날개를 달자 - 매일신문 시리즈 기사(07.12.31~08.02.04)
4. 일자리를 만들자 - 매일신문 시리즈 기사(07.07.06~07.10.04)